

"안녕하세요? 프란치스코입니다. 고추 새박스와 열무 한자루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필요하신가요?"
 "감사합니다. 수사님. 지금 봉사자들이 가지러 갔습니다. 상봉하세요."
 서울 제기동에서 시민모임 광고하기를 계(회주 법정)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내일을 준비하는사람들'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천주교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무료급식소 프란치스코집은 수시로 이런 전화가 온다.
 오직 노인 및 노숙자들을 위해 천주교집 야채가 불교집으로 종교를 뛰어 넘어 보내지는 것이다. 이런 인연은 문 연지 갖 1달 밖에 안된 '내일을 준비하는사람들' 보다 훨씬 오래된 프란치스코집 수사의 제안으로 맺어졌다.
 '내일을 준비하는모임' 이 막 문을 열었음에 이 곳에 산다며 프란치스코집 수사가 불꽃 찾아왔

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수사는 "우리는 오래 돼 많이 알려졌어 그런지 식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야채는 너무 많아 다 소화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보내드리고 싶다"고 운을 띄웠고 불교 급식소속에서 좋은 뜻을 고맙게 수용하면서 이뤄진 것.
 이렇게 보내주고 또 받기로 약속된 야채들은 대부분 이웃 경동시장에서 리어커를 끌며 일하는 아저씨들이 운임도 받지 않고 배달해준다. 리어커 아저씨들은 "우리가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있다"며 즐겁게 옮겨준다.
 프란치스코집에서 내일을 준비하는모임으로 보시면 야채들은 대부분 상인들이 팔다가 다 못한 야채들로 사실상 정품이 아니라 손질이 여의껏의 몇배가 더 간다. 그리고 그냥 놔두면 더 많이 시들어 먹지 못한다. 그래서 야채가 보내진 날이면 자원봉사자들은 가족들의 저녁준비도 잊은채 오후 7~8시까지 손목에 파스를 붙여가며 다듬는다.
 이처럼 이웃을 위한 자비와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야채는 노숙자 실직자들의 식탁에 올라 화려한 마음을 녹여주고 있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흔들리는 직장법회
 ① 정제요인 진단
 ② 활성화 방안

2백27곳의 직장 불자회중 81개 단체가 최근 몇달간 법회를 병행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6일부터 9일까지 전국 2백27곳의 직장·직능단체에 법회 개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법회를 열지 못하고 있는 단체중 24곳은 이미 해체되었거나 마찬가지로인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법회를 개최하고 있는 불

227곳중 82곳 '법회 중단'

24곳은 이름뿐 활동없어 IMF 찬바람에 회원급감 은행불자회 침체 두드러져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 거사불교 융성의 디딤돌인 직장·직능법회, IMF시대 이후 기업부도와 구조조정 영향으로 가장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어려운 때일 수록 일터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직장·직능법회의 침체는 생활불교의 정착을 더욱 멀어지게 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직장·직능법회에 대한 중단은 비롯한 교계의 관심 또한 미미한 실정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본지는 '흔들리는 직장법회'를 주제로 기획특집을 마련, △직장·직능법회의 현주소 △침체요인 진단 △활성화 방안 등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모두 2백27곳으로 지난 96년 10월의 1백97곳(현대불교신문 조사)에 비해 수적으로는 30여 곳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법회가 조직된 곳도 단위 사업장이 아닌 KDS와 운전기사불자회 등 전국조직의 지부형태였다. 즉 늘어난 숫자를 감안하더라도 법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곳이 81개 단체로 조사 결과 직장·직능단체는

모두 2백27곳으로 지난 96년 10월의 1백97곳(현대불교신문 조사)에 비해 수적으로는 30여 곳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법회가 조직된 곳도 단위 사업장이 아닌 KDS와 운전기사불자회 등 전국조직의 지부형태였다. 즉 늘어난 숫자를 감안하더라도 법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곳이 81개 단체로 조사 결과 직장·직능단체는

서울과 호남지역의 침체가 두드러졌다. 서울이 52개중 17곳, 호남지역은 20개중 14곳의 불자회가 법회를 중단했다. 직장법회의 개점휴업 사태는 한보 건로 대충 기아 건영그룹의 부도에서 시작했다. 부도로 인해 건영그룹 신하 8개, 기아 그룹 2개 불자회가 해체된 것은 물론 은행권까지 영향을 미쳐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 소속 16개 은행중 12개 은행불자회

의 법회 중단 상황으로 이어진 것. 여기에 정부기관에 대한 구조조정과 공기업 매각이 본격화될 때여서 감소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직능법회의 경우는 전문·자유직 모임이 대부분이어서 아직은 IMF바람을 덜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직능법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전북우주의 운영 △희망들의 소극성 △부실한 법회운영 등이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회장단과 임원들을 책임질 버가 퇴직하거나 전출하면 침체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직장·직능법회 활성화를 위해 관계자들은 중단 및 인근 사찰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지역 및 전국 단위 연합회 결성 등 합동법회 개최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IMF 찬바람에 회원이 급속히 감소되며 법회의 중단되는 사태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서울 관문사에서 5천여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국난극복 기원 참회대법회.



○대전 엑스포광장에서 열린 대법회 영산대제에는 4천여명 불자가 운집 성황을 이뤘다.

5일 관문사 '철야 관음정진' 10일 대전 '참회 영산대제'

"참회로 국난극복 지혜내자"

종단협의회(회장 원주) 주최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가 5일 서울 관문사에서 천태종 총무원(원장 운역)이 주관해 '동체대비 구원 철야관음정진'으로 일련데 이어 10일 관음종 총무원(원장 운파) 주관으로 대전 엑스포 지구담광장에서 '대참회 영산대제'로 봉행됐다.

국난극복 전국순회 제3차 대회로 열린 관문사법회는 첫 실 내행사로 각 종단지도자를 비롯 정·재계인사 등 5천여명이 참석해 실질적기금도 모금했다. 이날 법회는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님의 봉행사를 시작으로 원주스님의 법어, 전두환 대통령·신남균문화관광부장관·고건서울시장의 기원사, 박상규국민회의 연동회장의 발원문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어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님과 상대경 총무원장 신도 1천여명은 4일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철야 관음정진으로 국난극복을 발원했다. 한편 10일 우천속에서 열린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제1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현대불교신문은 미래불교의 주인공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여름방학을 이용한 어린이캠프를 열었다. 사찰과 용인 에버랜드의 자연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고 맑은 심신을 길러주는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는 새싹불자들에게 유익하고 신나는 시간이 될것입니다.
 불자임이 자랑스럽고 함께 있음이 즐거운 어린이 연합 캠프에 많은 어린이불자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용인 에버랜드·사찰에서 2박3일
 ○일 정: 1998년 7월23일(목)~25일(토)(2박3일)
 ○장 소: 용주사 신록사 옥아박물관 와우정사 경수사 백령사 에버랜드
 ○대 상: 초등학생 1~6년 (5백명 선착순)
 ○특 징: △불교문화유적 답사 △에버랜드에서 속삭이는이시설·수영장 캐리비안베이이시설 이용 아이타진 관람 △블로그로크리에이션·아침 저녁 예불·합선, 불교교리 공부 △T셔츠 기념품 선물 제공
 ○준비물: 23일 점심, 수영복, 수영모자, 해변도구, 필기구, 이불
 ○집 결: 23일 오전10시 조계사
 ○참가비: 5만원
 ○문의: 현대불교신문 (02)732-1523, 722-4162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진행: 선재이벤트
 후원: 조계종 포교원·진각종 통리원·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협찬: 불교조각원·현대프로덕션·(사)한국불교교과목학자선도회

중앙승가대 운영협의회의 봉은사 주지 추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봉은사 사부대중은 지난 7월 6일에 있었던 중앙승가대 운영협의회의 봉은사 주지 추천 건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며 봉은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세력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봉은사는 총무원장이 주지 임명권을 갖는 공찰(公刹)이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의 주지 임명은 총무원장 스님의 고유 권한이다. 봉은사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는 중앙승가대 운영협의회가 봉은사 주지를 추천하는 것은 마치 부산시민이 서울시장을 뽑는 격이며 봉은사를 중앙승가대직영사찰로 착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봉은사 대중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중앙승가대 동문회와 중앙승가대 운영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봉은사 주지가 임명된다면 공찰로서의 봉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봉은사 주지가 되기 위해서는 봉은사와 관계없이 중앙승가대 동문회장에 당선되지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승가대 운영협의회와 동문회가 봉은사 주지를 추천하는 것은 봉은사 주지 임명권자인 총무원장의 권위와 중립에 대한 도전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중앙승가대 운영협의회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바란다
 봉은사 사부대중은 지난 중앙승가대 동문회 운영위원회의 봉은사 주지 추천건과 관련하여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문회 운영위원회의 봉은사 주지 추천과 관련한 반박 성명에서 봉은사 주지 문제는 원칙적으로 봉은사 대중의 의견이 우선 존중되어야 함과 봉은사를 정치적 총정 대상으로 악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중앙승가대 학생스님들까지도 승가대학 신문을 통하여 '대체 어떤 논리에 의해 봉은사 주지직이 동문회장의 당연직이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진정한 동문회 결성 목적에 뜻을 둔다면 동문회장이 봉은사 주지직에 오른다는 잘못된 사고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동문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서도 동문회장이 봉은사 주지를 겸임하거나 봉은사 주지가 동문회장직을 겸임하는 전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동문회장은 중앙승가대 운영협의회의 인적 구성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중앙승가대 운영협의회에서 자체

규약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봉은사 주지 추천'을 결정함으로써 또다시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고 말았다. 운영협의회의 석상에서 몇몇 뜻있는 스님들이 '중앙 승가대 운영협의회는 학교발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지만 봉은사 주지직에 목적을 둔 세력들에 의해 묵살되고 말았다.
 중앙승가대교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중앙승가대 운영협의회와 동문회는 주지직 등 이권에 개입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중앙승가대교회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망신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앙승가대 운영협의회는 한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한 둘러리 기구가 아니다.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휘둘리지 말고 학교 발전이라는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충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봉은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세력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봉은사는 지난 88년 백야론 정화 과정을 겪었다. 봉은사 사부대중은 그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눈물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이제 겨우 그 상처를 극복하고 21세기 포교 재일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봉은사 사부대중은 봉은사 차기 주지 임명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들이 일반 국민과 불자들에게 주지직을 위한 갈등으로 비치지 않기를 바란다. 때문에 이에 대한 봉은사 사부대중의 입장을 밝혔고, 중앙승가대 운영협의회와 동문회가 봉은사 주지 임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추천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순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이는 봉은사와 불교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여 강력히 응징할 것을 천명한다. 한두 사람의 욕심 때문에 개혁중단 출범 후 화합과 포교에 정진하는 힘찬 분위기가 훼손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지는 일이 없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